

Mathewson 성경 강의 2 이야기 – 이스라엘

© 2024 Dave Mathewson 및 Ted Hildebrandt

이번 강의에서 데이브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선택에서 모세 언약으로, 그 다음에는 다윗 언약으로 옮겨갈 것이며, 이스라엘 이야기, 특히 오경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땅, 언약, 성전, 하나님의 백성, 왕권이라는 주제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이브 매튜슨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제가 성경의 줄거리라고 부르는 이야기의 배경,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배경과 복잡함을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되도록. 그분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은혜로운 선물, 축복의 장소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들로서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주권자이자 종주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해야 하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현장에 들어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위반했습니다. 그들은 축복의 장소인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줄거리의 주요 단절로 볼 수 있는 창세기 3장의 끝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전체 프로젝트를 폐기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본연의 뜻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좀 더 빠르게 나아가서 이야기의 다음 주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와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서 자손, 민족의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장소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의도를 성취하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수단이 되도록 그 명령을 완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추가 선택과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 더 구체적으로 모세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의도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를 위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것으로 시작하지만 특히 1장에서 이스라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신명기를 거쳐 오경 이야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만, 때로는 이야기를 채우기 위해 몇 가지 다른 텍스트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하며, 다시 한 번

이야기의 지배적인 주제와 맥락, 예를 들어 언약, 하나님의 백성, 에덴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에덴의 형상,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고 모든 창조물에 그의 통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부섭정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에서 시작되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선택되고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집트에 있으며,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시작되는데,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감독자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들 위에 세워 강제 노역으로 그들을 압박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해 보급 도시인 비돈과 라메세스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 나가므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게 되었느니라.

12절의 이 구절과 12절의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번식과 확장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즉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게 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지 못한 창조의 뜻을 회복하시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의도였던 하나님처럼 증가하고 퍼지고 있으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아브라함 이야기의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더 많아지고 그의 후손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늘의 별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의 그들의 상황은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에 위협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인도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애굽은 그들을 축복의 땅인 땅으로 인도하여 창조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6장부터 8장을 보면 이곳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입니다. 그것은 모두 땅과 연결되어 있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 끝까지 간다는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다층적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원래 의도로 회복시키려는 수단이었습니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과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사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함과 연관되어 있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데려오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 자체는 그 땅을 축복의 장소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 예를 들어, 오경 전체에 걸쳐 땅이 어떻게,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모세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떻게, 땅은 흐르는 곳, 예를 들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그들의 고난을 아노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며 그 땅에서 인도하여 평안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려왔노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족속의 땅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원래 창조와 함께 존재했던 풍요로움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원래의 것을 회복하시겠다는

뜻을 선언하십니다. 창작 의도. 예를 들어, 다시 신명기 28장에서 오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 28장으로 가서 1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여러분이 에덴과의 모든 연관성, 즉 열매 맺는 개념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식물이 돌아오고 창조가 풍성해진다는 생각에서 땅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모두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 원래의 창조를 축복의 장소이자 모든 풍요로움과 함께 사람들에게 땅을 은혜롭게 선물로 주신 것을 회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1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니라 여호와께서 네게 태의 새끼와 육축의 새끼와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 땅의 소산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풍성한 보고를 여시고 때를 따라 너희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네가 많은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너를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꼭대기에만 있고 낮은 곳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따라서 두 가지를 주목하세요. 첫째,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연결, 아브라함과의 연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고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에 있어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가는 연결, 땅에 있는 이 모든 생육과 축복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 즉 땅이 생육과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동일한 조건이 존재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관계와 언약의 규례를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아담과 하와와 같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다음 주제로 인도합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이야기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즉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책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법적, 제의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동산에 남아서 그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순종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일 순종하기를 거절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범법하면 그 땅, 곧 하나님의 축복의 곳, 곧 그 곳에서 제거되리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성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여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규정의 일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공급으로서 땅 창조의 결실과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럼 다시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의 처음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며 다시 이스라엘에게 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태의 소생과 땅의 소산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바구니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대적하여 나오다가 일곱 길로 네 앞에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네 창고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라고 명령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에덴동산의 원래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축복은 그들의 순종에 따라 언약의 일부로 조건지워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 를 들어, 신명기에서도 언약의 일부인 이 축복과 저주라는 주제가 신명기 전체에 걸쳐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는 계명과 규례와 법도니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지키라 명하신 것이라 너와 네 자녀와 네 손자들은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모세와 세우신 언약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 날이 장구하리라 .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듣고 이를 부지런히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곱셈과 증가의 언어에 주목하세요. 그리하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다시 조상, 아브라함과 연결하는 이 모티브는 모든 것이 창조 이야기로 돌아가는 번성이라는 언어는 이스라엘이 곧 그 땅에 들어가고 그들이

그 땅에서 축복과 번성을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암시합니다. 땅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의 일부입니다.

다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28장의 첫 부분은 그들이 순종하면 땅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8장 28장과 62절부터 64절까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심지어 창조까지의 연관성을 주목하십시오. 62절, 너희가 전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고 아브와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루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너희가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기뻐하심이니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으리라 너를 파멸시키고 파멸시키기를 기뻐하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에서 네가 뺏히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흠으시리니 네가 거기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라 그러므로 순종하면 땅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저주를 동반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모세 언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할 수단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20세기에 확립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른 성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의 언어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다시 되돌아가서 축복과 저주의 창조 기사를 반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할 경우 그 땅에서 추방된다는 약속, 하나님의 면전과 축복과 열매가 많은 곳에서 제거된다는 약속은 모두 아브라함의 언약을 반영하며, 이는 또한 그의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다음 주제는, 다시 한 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이야기했고, 언약에 대해 이야기했고, 땅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어떻게 창세기와 하나님의 성취하려는 의도인 창조와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와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원래 명령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다음 주제는 성막과 성전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함께 다룰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성막은 성전의 이동식 버전입니다. 성전은 태버내클보다 더 영구적인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성막은 적합했습니다.

일단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정착하고 설립된 후에는 사원 형태의 보다 영구적인 구조물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는 둘 다 비슷한 목적을 수행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성막입니다. 성막은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더 영구적인 거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성전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성전은 다른 이유에서도 중요했지만, 성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서의 의미는 이미 말했듯이 창세기의 에덴동산,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안식을 취하던 곳,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 안식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 또는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출애굽기 25장 이후의 성전 건축 기사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둘 사이의 유사점에 주목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실 거처, 성전, 성소를 짓고 계십니다.

이제 에덴동산은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막과 성전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동산의 복제품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에덴동산과 성전 사이의 유사점 중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전에서 성막과 성전 둘 다 실제로 금은 하나님의 것 중 하나라는 것을 봅니다. 성막과 성전을 만드는 주요 금속.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에덴동산에 대한 설명을 보면, 금이 에덴동산에서 발견되는 보석 중 하나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쉬신다는 개념, 하나님의 거처나 성전 안에 그분의 임재가 안식한다는 개념, 성전의 등대를 반사하는 발광체와 빛의 개념, 그리고 아마도 생명나무를 반사하는 등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성전 모티프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나중에 성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모티프입니다. 그러나 성전과 성막은 에덴동산 또는 에덴동산의 축소판인 에덴동산과 누스(Nus)의 복제품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 성전과 성막은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이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체에 스며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통치와 왕권이 모든 피조물을 가득 채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막은 결국 모든 창조물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금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성막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것뿐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기사인 열왕기상 5-7장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금이 하는 두드러진 역할에 주목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금은 창세기 2장의 낙원과 에덴동산에 대한 설명에서 발견되는 귀금속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유대 문학, 예를 들어 묵시 문학, 또 다른 문학에서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 역할을 한 제사장으로 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동산 전체에 비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흥미로운 징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을 보십시오... 이것은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의 일부인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29절 29절과 30절입니다.

“...그가 그룹의 형상으로 집의 벽 사면을 아로새겼고 종려나무를 잡으며 안방과 바깥방에 꽃을 피웠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열어 놓은 집의 바닥은 안쪽 방과 바깥쪽 방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우리는 이미 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는 천사들인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의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까? 아마도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열매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나무가 있던 에덴동산에는 생명나무와 나무가 돌아나고 열매를 맺는 풀이 돌아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사원의 조각은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룹의 조각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쫓겨난 이후, 신성한 공간인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두 그룹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과 야자수의 조각은 원래 창조의 풍요로움과 원래 낙원을 회상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6장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는 지성소를 지키는 두 그룹은 아마도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키는 천사적 존재인 두 그룹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등잔대는 내가 말했듯이 아마도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반영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창세기에서는 에스겔 47장에서 그 본문에 대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예언적 기대와 그것이 이야기와 줄거리가 진행되는 곳에 어떻게 들어맞는지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47장에서 우리는 다음에 대한 설명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회복된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이며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47장에서 에스겔은 성전을 강이 흘러나오는 곳으로 묘사하는데, 이 역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 양쪽에는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동산에 대한 묘사를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서 강이 흘러나오고, 생명나무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분명히 성전과 성막이 에덴동산의 복제품으로 의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전체를 위해 의도하신 바를 일종의 그림, 스냅샷, 축소된 초상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온 창조세계에 펼쳐질 축복과 풍성함의 처소. 일종의 구체화되거나 입증된 것은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제가 즐겨 부르는 대로 성전 정원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정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진행 중인 이야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이스라엘은 창조를 위한 그분의 원래 의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수단이 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주요 주제는 왕권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첫 번째, 이미 출애굽기 19장과 6절에서 제가 원하는 본문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19장과 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나 성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왕권의 이미지도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의도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류가 피조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 성전 정원 전체에 전파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분명히 반영합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추방당했습니다.

이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 의도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왕권이나 통치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는 주제가 이스라엘의 왕에게 더욱 분명하게 표현되고 반영됩니다. 특히 다윗 언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신 사무엘하 7장과 그 약속의 대부분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다윗 왕조의 성취와 메시아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대의 대부분이 사무엘하 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 특히 14절 주변 구절에서는 10절로 돌아가고, 실제로는 8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에서 취하여 양을 따르던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느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다 멸하고 네 이름을 크게 하리라. 아브라함 언약과의 연관성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이름을 크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땅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으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살게 하리니 다시는 동요하지 아니하며 행악자들이 다시는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세웠으니, 내가 너희를 모든 대적들에게서 벗어나 안식을 얻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뿐만 아니라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모든 주제에 주목하십시오. 그에게 안식을 주는 것, 땅에서 안식을 갖는다는 주제는 하나님의 안식, 땅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안식을 상기시킵니다.

또 이스라엘이 땅에 심겨진다는 주제, 축복의 주제, 다윗의 이름이 위대해진다는 주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을 연결하는데,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창조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계속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이것은 단지 일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되는 별도의 성약이나 별도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확립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한 수단인 창조 이야기까지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 12절은 아브라함과 창조물과의 또 다른 연결점입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네 날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도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처럼, 다윗에게도 후손이 약속되어 그의 후손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시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 즉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심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는 다윗 언약에서, 또는 다윗 언약에서도 성취됩니다.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13절과 14절,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가 다윗의 자손을 가리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언약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 중 한 사람이 항상 그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생각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 회복시키실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며, 다윗 왕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것이 나에게 시사하는 것은 다윗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 왕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인류를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시는 수단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부섭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것을 회복하시는 방식은 단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섭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최종적으로 성립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미안해요, 시편 2장에서 많은 시편이 종종 왕의 시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다윗 왕을 가리킨다. 그리고 시편 2장과 8절을 보면, 시편 2장에서 왕의 통치의 궁극적인 범위에 주목하는데, 왜 열방은 모반하고 백성은 헛된 음모를 꾸몄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느니라 하늘에 앉으신 이가 웃으심이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느니라

그 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진노하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 다윗 왕 곧 다윗의 자손을 세웠으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말하리라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니라

언약 공식이 있습니다. 나에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땅 끝까지 네 소유가 되게 하리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다윗왕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담과 해와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대왕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한번 다윗 가문의 왕이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본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통치를 확립하기 위해 다스리는 하나님의 부섭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며, 다윗 왕이 그 백성을 대신하여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이루는 것으로 본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세우신 창조조건의 회복으로 돌아가서, 지금 존재하는 이러한 조건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빛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모든 나라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땅에 확장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명기에서 모세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축복의 땅에 남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분의 영광을 온 피조물에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규정을 순종하고 지키는 한 이러한 조건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한 대로.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그 땅에 남아 있을 것이며, 다윗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모든 피조물 위에 전파하라는 명령을 완수하는 그 땅의 열매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한 그러한 조건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의 장소인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 때에는 창조에까지 소급되는 명령을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가 흘러가듯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다른 우상을 쫓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함께 임재하시는 장소인

땅에서 유배되어 이방 땅, 억압의 장소, 포로의 장소로 옮겨진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열왕기상 5~7장의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중에는 그 끝부분인 9장과 6~7절에서 사실 조금 백업할 수 있다면, 그리고 9장 1절부터 시작하여 6절과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모든 건축을 마치니라 솔로몬이 그 건축하고자 하던 건물을 여호와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하는 네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당신이 지으신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였나이다.

나는 거기에 영원히 내 이름을 넣었습니다. 내 눈과 마음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정직하게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다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나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할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네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세우신 언약의 축복 부분입니다. 그러나 6절과 7절, 그러나 너희와 너희 자손이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리겠다.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 곧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
거리가 될 것이라

이 집은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나고,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서
옮겨지고,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과 임재하시는 곳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땅 밖,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가 없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명한 유사점입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빠르게 살펴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먼저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첫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땅, 또 그들이 사는
땅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으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언약이 파멸되어 축복의 처소인 땅, 축복의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 이제 미니어처 동산, 에덴동산,

성전으로 인도되었으나 그들도 범죄하여 실패하고 언약 관계를 지키려 하다가 그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본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와서 동일한 명령을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온 피조물에게 전파하라고 다윗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의 형태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땅에서 그들은 축복과 풍요를 경험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추방당한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죄로 인해 파멸되고 좌절된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향한 그분의 원래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번에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의 영광과 통치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통치를 온 피조물에게 전파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은혜롭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살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이 순종하는 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거절하고 추방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본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도 그들에게 땅을 주시며,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며, 그들도 성전을 통해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순종하고 지키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땅의 복을 누릴 것이나, 이스라엘은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여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심으로써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인류를 통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이브의 보다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셔야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보다 구체적인 문제, 즉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죄를 통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를 보는 한 가지 방법은 아담과 이브가 만든 더 큰 글로벌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더 좁은 상황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계십니다. 고치는 감각. 그는 이스라엘의 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모든 창조물의 더 큰 문제를 해결하실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려움과 상황을 모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을 폐기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거나, 내가 다른 것을 시도하게 하거나, 원래 의도로 돌아가도록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향한 그분의 의도를 회복하실 수단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땅의 모든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도 아담과 하와와 마찬가지로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든 인류와 모든 창조물의 더 넓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죽음에서 구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성서의 나머지 부분과 신약성서에서도 이야기가 이어지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원래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라는 질문에 계속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질문을 통해서만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그곳의 문제를 회복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창조본연의 뜻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음 강의를 기대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야와 에스겔, 예레미야와 스가랴와 같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예언서에서 발견되는 기대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확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 선지자들이 기대하는 바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죄와 죽음에서 구출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도 그들의 곤경에서 구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선지서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을 바로잡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예상하고 예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든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예상하는 예언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살펴본 주요 주제를 다시 한 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정,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제는 하나님이 백성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주된 수단입니다. 땅과 창조의 주제는 땅과 창조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로 본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을 주제로 한 땅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원과 정원을 테마로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성전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그 땅에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권과 부섭정을 주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피조물을 다스리려는 의도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 특히 다윗 왕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려는 그분의 뜻이 궁극적으로 백성을 대신하여 통치할 다윗 왕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권의 주제. 내 생각에는 그 모든 주제가 모두 예언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예언서의 일부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매우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지만, 잠시 멈춰서 몇 가지 주요 구절을 살펴보고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단일 스토리라인의 일부로서 이러한 주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이 어떻게 예언 문헌을 통해 엮이기 시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이상을 지적하기 위해, 우리는 예언서에 명시된 기대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신약성서에서 성취될 것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실 이 새로운 백성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창세기 1장과 3장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의 끝을 향해 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줄거리인 오경 이야기에 관한 데이브 매튜슨의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